

保健學 碩士課程 履修者들의 諸特性 및 社會活動에 關한 調查研究

金周宣 · 金公鉉 · 金炳晟 · 朴享鐘

(仁濟大學校 保健大學院)

목 차

I. 서 론	IV. 고 찰
II. 조사대상 및 방법	V. 요 약
III. 연구 성적	참고문헌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보건학이 학문으로서 대학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852년 위생학이라는 과목으로 뮌헨 대학에서 개강되었으며, 1866년에 Max Von Pettenkofer가 세계최초로 위생학 교실을 창립하였다. 그후 미국에서 1913년에 Harvard 대학과 Massachusetts대학의 연립으로 Harvard Technology School of Public Health가 창설되어 보건통계학, 역학, 소아보건학, 산업보건학, 보건행정학 등 10여개 강좌가 개설되었다.¹⁾

이와 같이 초창기 보건학은 위생학이라는 좁은 개념이 었지만, 현대의 보건학은 인간이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 더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의 안녕을 목적으로 건강 문제를 지역사회적인 현상으로 포착하고 분석하며 또 그러한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학문이다.²⁾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복지정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보건사업이 확대되고 고도로 조직화되면서³⁾ 지역사회에서 의료인 외에도 전문적인 관리 및 분석기술을 소유한 보건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인력의 계층화와 전문화가 필요하게 되어 보건학은 학생들의 새로운 관심 분야로서 교육기회가 점

차 증가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보건학 석사과정은 1959년에 개설되어 그 당시 정원 40명, 수업 연한은 1년이었으나, 1962년부터 수업 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고, 1978년에는 정원이 200명으로 다시 증가되었다.⁴⁾ 또한 1977년에 개원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개원당시는 정원이 야간 20명이었으나, 1982년에는 정원이 115명으로 증원되었다.¹⁾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은 1981년에 개원하여 야간 100명,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은 1988년에 개원하여 야간 80명,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은 1988년에 개원하여 야간 115명,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은 1989년에 개원하여 야간 80명의 정원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⁵⁾ 이러한 우리나라 보건대학원의 양적인 팽창은 질적인 내실화라는 과제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사출신 학생들의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과제 등을 안고 있다.⁶⁾ 즉 이들에 대한 교육이 현재 강의식 교육으로 되어있는 것을 학생 중심의 보건학 교육으로 운영하여, 졸업후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는 보건사업을 담당할⁷⁾ 수 있는 능동적인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건학을 연구하며 보건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봉사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진 보건대학원이 과연 오늘날 지역사회에 요구에 부합되는지, 변화하는 지역사회에 요구에 대처하려면⁸⁾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 또한 지금까지 국민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보건요원을 양성해 왔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새 시대가 요청하는 보다 큰 사명을 보건대학원이 맡아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⁸⁾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보건대학원의 보건학 교육이 직접적으로 사회의 요구와 수요에 관계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평가를 위하여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체계(Evaluation System)의 변인인 진단적평가, 형성적평가, 총합적평가를 이용하여야 한다. 진단적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전 단계에 이른 학생들의 특성, 지식수준 및 기술 등을 가리키며, 형성적 평가는 교수-학습과정이 전개되어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총합적 평가란 학생들의 성취도를 최종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교육목표의 타당성과 교수-학습과정의 적정성을 진단평가하여 그 결과를 교수-학습과정의 향상에 활용한다는 것이다.⁹⁾ 즉, 보건학 교육과정의 최종적인 평가는 결국 졸업생들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포함된다.⁷⁾ 그러므로 이 세 요소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데,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교육전 및 교육후 학생 개개인의 상태에⁹⁾ 대한 연구를 하여 교육대상이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지를 알아야 한다.

1946년의 세계보건기구 헌장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 인간의 건강에 대한 권리와 국가사회의 건강을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여 보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을 뿐 아니라 의학 및 기타 과학의 발달, 사회적 정치적 진전으로 보건사업은 환경위생에 대한 관심에서 점차 위생공학, 예방의학, 정신보건 등이 강조되었고, 최근에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와 1차보건의료가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의 목표를 내걸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1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를 그 전략방법으로 채택하여 국가의 보건 의료조직을 재정비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거국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한 1978년 Alma-Ata 선언이 보건의료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⁰⁾ 즉, 그 시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보건인력은 그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산업,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 보건 의료정책의 과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개략적으로

전망해 본다.

첫째, 국민의료 보장제도 및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될 것이다.¹¹⁾

둘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강유지 및 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보건의료 요구의 증가 및 다양화와 함께 의료의 질적향상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이므로 의료공급의 접근성과 형평성 그리고 전문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¹²⁾

셋째,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정착될 것이므로 지역적 특성에 바탕을 둔 보건사업이 확대될 것이다.¹³⁾

넷째, 사회 경제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과거의 전염병 및 급성질환 위주의 보건문제로부터 고혈압, 심장병, 암, 당뇨병, 각종 사고 등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과 성인병 그리고 정신병등의 보건문제로 전환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¹⁴⁾

다섯째, 국가 보건기초자료가 확립될 것이다.¹⁵⁾

여섯째, 1차 보건의료가 강화될 것이다.¹⁶⁾

일곱째, 인구증가, 공업화, 산업화의 진전 및 생산기술의 혁신으로 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¹⁶⁾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수많은 건강문제가 있는데, 특히 식품위생, 국민 영양개선 등에 대한 관심은 상존해 있을 것이며, 선진화될수록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미혼모, 인공유산 등에 의한 사회병리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⁵⁾ 그러므로 이의 해결이 주요과제가 됨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인력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학 교육이 필수적인데 현재 보건대학교기관이 보건대학원 위주에서 학부 및 전문대학 과정까지 급속히 팽창됨으로써 보건학의 학문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즉, 보건사업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사업과 연계한 보건교육도 미비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는 보건학 교육도 미흡한 실정이다.⁵⁾

올바른 교육적 성취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학생이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진 요소이다.⁹⁾

결국 학생은 학습자로서 졸업생의 사회활동 및 특성, 그들의 재학 당시 교육에 대한 견해, 관심 및 동기, 학교 환경, 졸업생을 고용하려는 자의 기대, 학칙에 준한 양성 등과 더불어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요소가 된다.¹⁷⁾ 그러므로 보건대학원의 발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학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연구의 목적

외국의 경우 이미 보건대학원 학생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교육목적에 구체화한 예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보건학 석사과정 학생들의 제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게 현실이다. 본 전자는 보건대학원 졸업생들의 제특성을 입학전, 재학시, 석사과정 이수후 사회활동분야, 전공과목 활용도 등을 분석하여 앞으로 사회요구에 기본을 둔 보건학석사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졸업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2. 졸업생들의 재학시 느낀 보건대학원의 제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의견을 분석한다.
3. 졸업생들의 졸업후 직장에서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전공과목 활용도, 전공지식을 통한 사회기여에 대하여 분석한다.
4. 졸업생들의 졸업후 사회활동분야를 분석한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1987년부터 1989년까지 3개년 동안 모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이수한 199명 중 조사 당시 해외 공무여행 중이거나 이민(재미, 재일) 또는 소재지 미상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80명을 제외한 119명(59.8%)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변수선정

조사방법은 우편을 통한 설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조사기간은 1991년 12월 1일부터 1992년 2월말까지 3개월간이었다.

모 대학교 보건대학원 동창회의 1991년도판 회원명부에 의거 보건학 석사학위 이수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밝힌 조사표(설문지)를 우송하였다. 설문지가 미회수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4차에 걸쳐 독촉서신과 함께 설문지를 재우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설문지 회송을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근무처에 대한 분류는 홍재홍(1970)의 연구를¹⁸⁾ 참고하였다. 조사내용에 있어서 성별, 연령, 학사 및 석사전공, 보건 및 비보건 전문직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석사 및 학사전공별, 전공필수과목별, 직업별, 보건분야 근무처별 나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1. 졸업후 졸업생들의 직장에서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 전공과목 활용도, 전공지식을 통한 사회 기여도.
2. 졸업후 졸업생들의 재학시 느낀 보건대학원 제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의견.
3. 졸업후 졸업생들의 사회활동, 보건대학원 입학전과 졸업후 취업상태 및 보건분야 근무처 현황.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컴퓨터를 이용 SPSS/PC+ Package Program으로 처리하였다.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차이는 Chi-Square 검정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정하였다.

III. 연구성적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65.5%, 여자가 34.5%이며 입학 당시 연령 분포는 24~28세가 46.2%로 가장 많고, 34세 이상의 10.9%로 가장 적다. 남자 가운데는 29~33세가 25.2%, 여자가운데는 24~28세가 21.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는 기혼자가 76.5%이며, 기혼자 중 남자가 52.1%, 미혼자중 남자가 24.4%로 나타났다.

석사전공 분포는 보건행정학이 33.7%로 가장 많고, 환경보건학이 21.8%, 보건간호학이 13.4% 역학 및 보건통계학이 10.1%의 순이며, 보건경제학이 0.8%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전공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보건행정이 26.0%, 환경보건이 19.3%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보건간호가 13.4%로 많게 나타났다.

학사전공 분포는 의학계열이 28.6%로 가장 많고, 공과대학 18.5%, 농과대학 9.2%, 보건대학 8.4% 순이며, 외국어대학이 0.8%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학사전공별 남자는 공과대학이 17.7%, 농과대학이 9.2%, 보건대학, 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남	여	계	
대학원 입학	2 3 세 이 하	8 (6.7)	9 (7.6)	17 (14.3)	
	2 4 - 2 8	29 (24.4)	26 (21.8)	55 (46.2)	
	당시의 연령	2 9 - 3 3	30 (25.2)	4 (3.4)	34 (28.6)
		3 4 - 3 8	4 (3.3)	2 (1.7)	6 (5.0)
		3 9 세 이 상	7 (5.9)	-	7 (5.9)
	계	78 (65.5)	41 (34.5)	119 (100.0)	
		$\chi^2=18.00820$	D.F.=4	P=0.0012	
결혼 여부	기 혼	62 (52.1)	29 (24.4)	91 (76.5)	
	미 혼	16 (13.4)	12 (10.1)	28 (23.5)	
	계	78 (65.5)	41 (34.5)	119 (100.0)	
		$\chi^2=0.71005$	D.F.=1	P=0.0399	
석사 전공	모 자 보 건	2 (1.7)	1 (0.8)	3 (2.5)	
	보 건 간 호	-	16 (13.4)	16 (13.4)	
	보 건 경 계	-	1 (0.8)	1 (0.8)	
	보 건 교 육	2 (1.7)	5 (4.2)	7 (5.9)	
	보 건 행 정	31 (26.0)	9 (7.7)	40 (33.7)	
	산 업 보 건	10 (8.4)	-	10 (8.4)	
	역학및보건통계	6 (5.0)	6 (5.1)	12 (10.1)	
	인 구 학	4 (3.4)	-	4 (3.4)	
	환 경 보 건	23 (19.3)	3 (2.5)	26 (21.8)	
	계	78 (65.5)	41 (34.5)	119 (100.0)	
		$\chi^2=56.77371$	D.F.=11	P=0.0000	
학사 전공	가 정 대 학	-	4 (3.4)	4 (3.4)	
	경 영 대 학	8 (6.7)	-	8 (6.7)	
	공 과 대 학	21 (17.7)	1 (0.8)	22 (18.5)	
	농 과 대 학	11 (9.2)	-	11 (9.2)	
	법 과 대 학	8 (6.7)	-	8 (6.7)	
	보 건 대 학	8 (6.7)	2 (1.7)	10 (8.4)	
	사 범 대 학	4 (3.4)	-	4 (3.4)	
	외국어 대 학	-	1 (0.8)	1 (0.8)	
	의 과 대 학	7 (5.9)	27 (22.7)	34 (28.6)	
	인 문 대 학	5 (4.2)	3 (2.5)	8 (6.7)	
	자연과학대 학	5 (4.2)	2 (1.7)	7 (5.9)	
	한의학 대 학	1 (0.8)	1 (0.9)	2 (1.7)	
	계	78 (65.5)	41 (34.5)	119 (100.0)	
		$\chi^2=66.23083$	D.F.=11	P=0.0000	
근무 분야	보 건 전문 직	57 (47.9)	38 (31.9)	95 (79.8)	
	보 건 비전문 직	20 (16.8)	2 (1.7)	22 (18.5)	
	보 직	1 (0.8)	1 (0.9)	2 (1.7)	
	계	78 (65.5)	41 (34.5)	119 (100.0)	
		$\chi^2=8.13347$	D.F.=2	P=0.0171	

과대학, 경영대학 등은 모두 6.7%로 나타났고, 여자는 의 학계열이 22.7%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분야는 보건 전문직이 79.8%, 보건 비전문직이 18.5%로 나타났으며, 보건 전문직 중 남자가 47.9%, 여자가 31.9%, 보건 비전문직중 남자가 16.8%로 나타났다(표 1).

2. 전공별 입학 동기

졸업생들의 입학한 동기를 분석한 결과 학업을 계속하 기 위해서는 41.2%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직업과 관 련되어서가 35.3%이며, 지역봉사를 위해서가 3.4%로 가 장 적게 나타났다.

석사전공별 입학한 동기를 분석한 결과 학업을 계속하 기 위해서는 환경보건과 보건간호학이 각각 61.5%, 50.0%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과 관련되어서가 보건간호 보건 교육, 산업보건학이 각각 43.8%, 42.9%, 40.0%로 나타났 다(표 2).

3. 입학 당시의 기대감 유형

입학 당시의 기대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보건학 전문 지식 습득을 위해서가 31.9%로 가장 많게 나타났고, 실 무의 도움을 위하여, 교육자가 되기 위하여는 모두 22.7%로 나타났다. 또 전문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가 18.5%로 나타났다(표 3).

표 3. 입학 당시의 기대감 유형

		단위 : 명(%)
(기대감 유형)	응답자	
보건학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38 (31.9)	
직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4 (3.4)	
실무의 도움을 하여	27 (22.7)	
교육자가 되기 위하여	27 (22.7)	
전문 연구원이 되기 위하여	22 (18.5)	
기 타	1 (0.8)	
계	119 (100.0)	

4. 보건관리학과의 순위별 전공과목에 대한 의견

보건관리학과 이수자의 순위별 전공 필수과목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1순위로는 보건행정 16.6%, 보건통계 14.1%, 역학관리 14.1%, 일반보건 11.5%, 보건간호 9.0%의 순으 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보건통계 21.8%, 역학관리 11.5%, 보건사회 9.0%, 보건기획 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 위로는 역학관리 9.0%, 공중보건, 보건교육, 보건통계 각 각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순위로는 일반보건 11.6%, 보건사회, 보건행정 각각 10.4%, 공중보건, 보건통 계, 보건경제 각각 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순위로는 보건통계 26.6%, 역학관리 8.0%, 모자보건사업 행정 6.7%, 보건경제 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별 수위(首位)를 차지한 과목과 순위별로 공통되는 과목은 1-5순위 전체 응답자(384명)중 보건통계 15.4%,

표 2. 전공별 입학 동기

구 분	단위 : 명(%)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직업과 관련되어서	주변의 권유로	보건직에 관 심이 있어서	지역 봉사 를 위해서	기 타	계
모 자 보 건	1 (33.4)	1 (33.3)	1 (33.3)	-	-	-	3 (100.0)
보 건 간 호	8 (50.0)	7 (43.8)	1 (6.2)	-	-	-	16 (100.0)
보 건 경 제	-	1(100.0)	-	-	-	-	1 (100.0)
보 건 교 육	3 (42.9)	3 (42.9)	-	1 (14.2)	-	-	7 (100.0)
보 건 행 정	14 (35.0)	16 (40.0)	4 (10.0)	2 (5.0)	1 (2.5)	3 (7.5)	40 (100.0)
산 업 보 건	3 (30.0)	4 (40.0)	-	2 (20.0)	-	1 (10.0)	10 (100.0)
역학및보건통계	3 (25.0)	1 (8.0)	-	7 (59.0)	1 (8.0)	-	12 (100.0)
인 구 학	1 (25.0)	1 (25.0)	1 (25.0)	-	-	1 (25.0)	4 (100.0)
환 경 보 건	16 (61.5)	8 (30.8)	-	-	2 (7.7)	-	26 (100.0)
계	49 (41.2)	42 (35.3)	7 (5.8)	12 (10.1)	4 (3.4)	5 (4.2)	119(100.0)
$\chi^2=90.94767$		D.F.=55		P=0.0016			

표 4. 순위별 전공 필수과목에 대한 의견(보건관리학과)

과목별/순위별	단위 : 명(%)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공중보건	3 (3.8)	6 (7.7)	6 (7.8)	5 (6.5)	2 (2.7)
노인보건	-	-	1 (1.3)	-	1 (1.4)
대기관리	-	1 (1.3)	-	-	-
독성학	-	-	-	1 (1.3)	1 (1.4)
모자보건사업행정	2 (2.6)	1 (1.3)	-	-	5 (6.7)
병원관리	6 (7.7)	3 (3.8)	3 (3.9)	3 (3.9)	2 (2.7)
보건간호	7 (9.0)	3 (3.8)	3 (3.9)	4 (5.2)	3 (4.1)
보건경제	3 (3.8)	4 (5.1)	5 (6.5)	5 (6.5)	4 (5.4)
보건교육	-	3 (3.8)	6 (7.8)	1 (1.3)	1 (1.4)
보건기획	1 (1.3)	6 (7.7)	5 (6.5)	3 (3.9)	1 (1.4)
보건법규	-	-	1 (1.3)	-	-
보건사	1 (1.3)	-	2 (2.6)	2 (2.6)	2 (2.7)
보건사회	2 (2.6)	7 (9.0)	5 (6.5)	8 (10.4)	3 (4.1)
보건정책	1 (1.3)	2 (2.6)	-	1 (1.3)	1 (1.4)
보건통계	11 (14.1)	17 (21.8)	6 (7.8)	5 (6.5)	20 (26.6)
보건학계론	1 (1.3)	1 (1.3)	1 (1.3)	1 (1.3)	-
보건행정	13 (16.6)	5 (6.4)	4 (5.2)	8 (10.4)	5 (6.7)
비교의료제도	-	-	2 (2.6)	1 (1.3)	-
산업보건	-	-	1 (1.3)	1 (1.3)	-
산업위생	-	-	-	1 (1.3)	-
산업환경	-	-	1 (1.3)	-	-
생태학	-	1 (1.3)	1 (1.3)	1 (1.3)	-
수질관리	1 (1.3)	-	-	-	1 (1.4)
식품위생	-	-	-	2 (2.6)	2 (2.7)
역학관리	11 (14.1)	9 (11.5)	7 (9.0)	4 (5.2)	6 (8.0)
의료보장론	-	1 (1.3)	2 (2.6)	2 (2.6)	-
의료보험	-	2 (2.6)	4 (5.2)	1 (1.3)	-
인구학	2 (2.6)	1 (1.3)	-	-	1 (1.4)
일반보건	9 (11.5)	1 (1.3)	4 (5.2)	9 (11.6)	1 (1.4)
전자계산	1 (1.3)	-	-	-	-
정보론	-	1 (1.3)	-	1 (1.3)	2 (2.7)
정신위생	-	-	1 (1.3)	1 (1.3)	-
지역사회보건실습	-	-	-	1 (1.3)	3 (4.1)
폐기물관리	-	-	1 (1.3)	-	-
학교보건	3 (3.8)	-	2 (2.6)	-	2 (2.7)
환경보건	-	3 (3.8)	1 (1.3)	4 (5.2)	3 (4.1)
환경위생	-	-	1 (1.3)	1 (1.3)	-
환경화학	-	-	1 (1.3)	-	1 (1.4)
회귀분석	-	-	-	-	1 (1.4)
계	78 (100.0)	78 (100.0)	77 (100.0)	77 (100.0)	74 (100.0)

역학관리 8.6%, 보건행정 6.8%, 보건사회 5.2%, 공중보건 4.4%, 보건경제 3.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5. 환경보건학과의 순위별 전공과목에 대한 의견
 환경보건학과 이수자의 순위별 전공 필수과목의 의견을

표 5. 순위별 전공 필수과목에 대한 의견(환경보건학과)

과목별/순위별	단위:명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공중보건	-	-	-	1 (2.9)	1 (2.9)
농약학	-	-	1 (2.9)	-	-
대기관리	1 (2.9)	3 (8.6)	2 (5.9)	2 (5.9)	1 (2.9)
독성학	-	3 (8.6)	2 (5.9)	3 (8.8)	2 (6.0)
병원관리	-	-	-	-	2 (6.0)
보건경제	-	2 (5.7)	-	-	-
보건교육	-	-	-	1 (2.9)	1 (2.9)
보건기획	-	-	-	1 (2.9)	-
보건법규	1 (2.9)	-	-	-	1 (2.9)
보건사회	-	-	-	-	2 (6.0)
보건정책	-	-	2 (5.9)	-	-
보건통계	3 (8.6)	5 (14.2)	3 (8.8)	3 (8.8)	6 (17.6)
보건학개론	-	1 (2.9)	-	-	2 (6.0)
보건행정	-	-	1 (2.9)	1 (2.9)	-
산업보건	5 (14.2)	3 (8.6)	1 (2.9)	1 (2.9)	3 (8.8)
산업위생	-	-	1 (2.9)	1 (2.9)	-
산업환경	1 (2.9)	-	2 (5.9)	-	-
생태학	1 (2.9)	-	1 (2.9)	-	-
수질관리	1 (2.9)	5 (14.2)	3 (8.8)	4 (11.9)	1 (2.9)
식품위생	2 (5.7)	-	-	-	-
역학관리	5 (14.2)	2 (5.7)	3 (8.8)	6 (17.7)	3 (8.8)
일반보건	-	3 (8.6)	-	-	1 (2.9)
임상병리	-	-	-	-	1 (2.9)
작업환경측정	1 (2.9)	-	1 (2.9)	2 (5.9)	1 (2.9)
전자계산	1 (2.9)	-	1 (2.9)	-	-
정보론	-	-	-	-	1 (2.9)
지역사회보건실습	1 (2.9)	-	-	-	-
폐기물관리	1 (2.9)	2 (5.7)	3 (8.9)	4 (11.9)	1 (2.9)
폐수처리	-	1 (2.9)	4 (11.9)	1 (2.9)	1 (2.9)
환경관리	2 (5.7)	1 (2.9)	-	-	-
환경보건	9 (25.5)	-	3 (8.9)	1 (2.9)	2 (6.0)
환경영향평가	-	-	-	-	1 (2.9)
환경위생	-	3 (8.5)	-	2 (5.9)	-
회귀분석	-	1 (2.9)	-	-	-
계	35 (100.0)	35(100.0)	34(100.0)	34(100.0)	34(100.0)

분석한 결과 1순위로는 환경보건 25.5%, 산업보건, 역학관리 각각 14.2%, 보건통계 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수질관리, 보건통계 각각 14.2%, 대기관리, 독성학, 산업보건, 일반보건, 환경위생 각각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폐수처리 11.9%,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환경보건, 보건통계, 역학관리 각각 8.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순위로는 역학관리 17.7%,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각각 11.9%, 독성학, 보건통계 각각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순위로는 보건통계 17.6%, 산업보건, 역학관리 각각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별 수위(首位)를 차지한 과목과 순위별로 공통되는

과목은 1-5순위 전체응답자(172명) 중 보건통계 11.6%, 역학관리 9.9%, 환경보건 8.1%, 수질관리 7.0%, 산업보건 6.4%, 독성학 5.8%, 폐기물관리 5.2%, 대기관리 4.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6. 석사전공별 논문 지도교수 1명당 학생수에 대한 의견

석사전공별 논문 지도교수 1명당 학생수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59.7%가 논문 지도교수 1명당 학생수는 4-5명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표 6).

표 6. 석사전공별 논문 지도교수 1명당 학생수에 대한 의견

전공별\학생수	단위: 명 (%)				
	2~3명	4~5명	6~7명	8~10명	계
모 자 보 건	-	1 (33.3)	-	2 (66.7)	3 (100.0)
보 건 간 호	3 (18.8)	9 (56.2)	2 (12.5)	2 (12.5)	16 (100.0)
보 건 경 제	-	1 (100.0)	-	-	1 (100.0)
보 건 교 육	-	2 (28.6)	4 (57.1)	1 (14.3)	7 (100.0)
보 건 행 정	5 (12.5)	29 (72.5)	4 (10.0)	2 (5.0)	40 (100.0)
산 업 보 건	3 (30.0)	6 (60.0)	1 (10.0)	-	10 (100.0)
역학및보건통계	2 (16.7)	8 (66.6)	2 (16.7)	-	12 (100.0)
인 구 학	-	1 (25.0)	2 (50.0)	1 (25.0)	4 (100.0)
환 경 보 건	8 (30.8)	14 (53.8)	4 (15.4)	-	26 (100.0)
계	21 (17.6)	71 (59.7)	19 (16.0)	8 (6.7)	119(100.0)

$\chi^2=48.43739$ D.F.=33 P=0.0405

표 7. 석사전공별 논문 지도교수 배정시기에 대한 의견

구 분	단위: 명 (%)				
	3학기 초	3학기 말	4학기 초	4학기 말	계
모 자 보 건	2 (66.7)	1 (33.3)	-	-	3 (100.0)
보 건 간 호	10 (62.5)	5 (31.3)	-	1 (6.2)	16 (100.0)
보 건 경 제	1 (100.0)	-	-	-	1 (100.0)
보 건 교 육	2 (28.6)	3 (42.8)	2 (28.6)	-	7 (100.0)
보 건 행 정	33 (82.5)	7 (17.5)	-	-	40 (100.0)
산 업 보 건	7 (70.0)	2 (20.0)	1 (10.0)	-	10 (100.0)
역학및보건통계	11 (91.7)	1 (8.3)	-	-	12 (100.0)
인 구 학	4 (100.0)	-	-	-	4 (100.0)
환 경 보 건	22 (84.6)	3 (11.5)	1 (3.9)	-	26 (100.0)
계	92 (77.3)	22 (18.5)	4 (3.4)	1 (0.8)	119(100.0)

$\chi^2=61.57536$ D.F.=33 P=0.0018

7. 석사과정별 논문 지도교수 배정시기에 대한 의견
 석사과정별 논문 지도교수 배정시기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77.3%가 3학기초가 바람직하다고 나타났다(표 7).

8. 장학생 선발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
 장학생 선발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前)학기의 성적이 33.6%,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31.1%, 교수 추천이 24.4%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장학생 선발시 우선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

고려 사항에 대한 내용	단위: 명 (%)	
	응	답 자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37	(31.1)
전(前)학기의 성적이 의해서	40	(33.6)
교수의 추천을 받아	29	(24.4)
직업의 유무에 따라	5	(4.2)
조교의 경험 유무에 따라	2	(1.7)
장학생 선발시험에 의하여	6	(5.0)
계	119	(100.0)

표 9. 석사전공 및 전문직별 졸업후 전공과목 활용도

구 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석 사 전 공						
모 자 보 건	-	2 (66.7)	-	1 (33.3)	-	3 (100.0)
보 건 간 호	2 (12.5)	4 (25.0)	10 (62.5)	-	-	16 (100.0)
보 건 경 제	1 (100.0)	-	-	-	-	1 (100.0)
보 건 교 육	-	5 (71.4)	1 (14.3)	1 (14.3)	-	7 (100.0)
보 건 행 정	3 (7.5)	17 (42.5)	11 (27.5)	6 (15.0)	3 (7.5)	40 (100.0)
산 업 보 건	2 (20.0)	5 (50.0)	2 (20.0)	1 (10.0)	-	10 (100.0)
역학및보건통계	-	4 (33.3)	5 (41.7)	3 (25.0)	-	12 (100.0)
인 구 학	-	2 (50.0)	1 (25.0)	-	1 (25.0)	4 (100.0)
환 경 보 건	1 (3.8)	20 (77.0)	4 (15.4)	1 (3.8)	-	26 (100.0)
계	9 (7.6)	59 (49.6)	34 (28.6)	13 (10.9)	4 (3.3)	119 (100.0)
		$\chi^2=64.64499$	D.F.=44	P=0.0229		
보건및 비보건 전문직						
보 건 전 문 직	9 (9.6)	52 (54.7)	26 (27.4)	6 (6.3)	2 (2.1)	95 (100.0)
비 보건 전문직	-	6 (27.3)	7 (31.8)	7 (31.8)	2 (9.1)	22 (100.0)
무 직	-	1 (50.0)	1 (50.0)	-	-	2 (100.0)
계	9 (7.6)	59 (49.6)	34 (28.6)	13 (10.9)	4 (3.3)	119 (100.0)
		$\chi^2=20.57462$	D.F.=8	P=0.0084		

9. 석사전공 및 전문직별 전공과목 활용도

지역사회나 직장에서의 전공과목 활용도 즉, 사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높다가 57.2%로 나타났고, 낮다가 14.3%로 나타났다. 석사전공별로 볼 때 환경보건, 보건교육, 산업보건, 모자보건학이 각각 80.8%, 71.4%, 70.0%, 66.7%로 전공과목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비보건 전문직별로 볼 때 보건 전문직 중에서 64.2%가 전공과목의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고, 보건 비전문직 중에서 40.9%가 전공과목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10. 보건대학원 발전의 우선과제에 대한 의견

의 건 내 용	단위: 명 (%)	
	응	답 자
전임교수의 수를 보강해야 한다.	44	(37.9)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21	(18.2)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12	(10.3)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확보해야 한다.	39	(33.6)
계	116	(100.0)

무응답 3명 제외

10. 보건대학원발전의 우선과제에 대한 의견

보건대학원 발전의 우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수의 증원이 37.9%, 자질이 우수한 학생 확보가 33.6%로 나타났다(표 10).

11. 전공별 입학전, 재학중, 현재 보건분야 근무처 현황

전공별 입학전과 재학중의 보건분야 근무처는 큰 변동 사항이 없었고, 전공별 입학전과 현재의 보건분야 취업률

표 11. 전공별 입학전, 재학중, 현재 보건분야 근무처 현황

단위: 명 (%)

구 분	교 육 기 관	도 청 노 동 부 시 청 구 청	보건사회부		연구원 의 원 의 원	일 반 회 사	계 약 회 사	종 합 병 원	한 의 원		계			
			또는 직 속 기 관	보건소					또는 연구소	개 업		개 업	환 경 처	
모자	입학전	-	-	-	-	-	-	1(100.0)	-	-	1(100.0)			
	재학중	-	-	-	-	1(100.0)	-	-	-	-	1(100.0)			
보건	현재	2(66.7)	-	-	-	1(33.3)	-	-	-	-	3(100.0)			
보건	입학전	1(7.7)	-	2(15.4)	-	-	-	10(76.9)	-	-	13(100.0)			
	재학중	1(7.7)	-	2(15.4)	-	-	-	10(76.9)	-	-	13(100.0)			
간호	현재	6(37.4)	-	1(6.3)	-	-	1(6.3)	8(50.0)	-	-	16(100.0)			
보건	입학전	-	-	-	-	-	-	-	-	-	-			
	재학중	-	-	-	-	-	-	-	-	-	-			
경제	현재	-	1(100.0)	-	-	-	-	-	-	-	1(100.0)			
보건	입학전	-	2(40.0)	1(20.0)	1(20.0)	-	-	1(20.0)	-	-	5(100.0)			
	재학중	4(66.6)	-	1(16.7)	-	-	-	1(16.7)	-	-	6(100.0)			
교육	현재	4(66.6)	-	1(16.7)	-	1(16.7)	-	-	-	-	6(100.0)			
보건	입학전	8(33.3)	-	1(4.2)	5(20.8)	1(4.2)	1(4.2)	-	-	8(33.3)	24(100.0)			
	재학중	10(37.1)	-	1(3.7)	5(18.5)	1(3.7)	1(3.7)	-	1(3.7)	8(29.6)	27(100.0)			
행정	현재	15(40.6)	-	1(2.7)	8(21.6)	1(2.7)	2(5.4)	-	1(2.7)	1(2.7)	8(21.6)			
산업	입학전	2(33.3)	1(16.7)	-	-	2(33.3)	-	1(16.7)	-	-	6(100.0)			
	재학중	1(16.6)	1(16.6)	-	-	3(50.0)	-	1(16.7)	-	-	6(100.0)			
보건	현재	1(16.6)	1(16.7)	-	-	2(33.3)	-	2(33.3)	-	-	6(100.0)			
역학	입학전	1(33.3)	-	-	-	-	-	2(66.7)	-	-	3(100.0)			
및보	재학중	1(33.3)	-	-	-	-	-	2(66.7)	-	-	3(100.0)			
건통계	현재	2(20.0)	-	1(10.0)	-	2(20.0)	-	1(10.0)	4(40.0)	-	10(100.0)			
인	입학전	1(100.0)	-	-	-	-	-	-	-	-	1(100.0)			
구	재학중	1(100.0)	-	-	-	-	-	-	-	-	1(100.0)			
학	현재	1(50.0)	-	-	-	1(50.0)	-	-	-	-	2(100.0)			
환경	입학전	3(20.0)	-	4(26.7)	2(13.3)	-	3(20.0)	-	-	1(6.7)	2(13.3)	15(100.0)		
	재학중	3(18.7)	-	5(31.2)	2(12.5)	-	3(18.7)	-	1(6.3)	-	1(6.3)	16(100.0)		
보건	현재	4(18.2)	-	6(27.3)	2(9.1)	-	7(31.8)	-	-	-	1(4.5)	2(9.1)	22(100.0)	
	입학전	16(23.5)	1(1.5)	7(10.3)	10(14.7)	2(2.9)	6(8.8)	-	1(1.5)	-	22(32.4)	1(1.5)	2(2.9)	68(100.0)
					$\chi^2=106.38274$		D.F.=72		P=0.0053					
계	재학중	21(28.7)	1(1.4)	6(8.2)	10(13.7)	1(1.4)	7(9.6)	1(1.4)	2(2.7)	1(1.4)	21(28.7)	1(1.4)	1(1.4)	73(100.0)
					$\chi^2=144.20111$		D.F.=90		P=0.0003					
	현재	35(34.1)	2(1.9)	7(6.8)	13(12.6)	1(1.0)	14(13.6)	2(1.9)	4(3.9)	2(1.9)	20(19.4)	1(1.0)	2(1.9)	103(100.0)
					$\chi^2=264.74158$		D.F.=130		P=0.0000					

을 분석한 결과 역학 및 보건통계가 233.3%, 보건행정이 54.2%, 환경보건이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 근무처별 입학전과 현재의 취업률을 분석하면 일반 회사가 300.0%, 연구원 또는 연구소가 133.3%, 교육기관

표 12 졸업생들의 전문지식 활용도, 사회기여, 직무만족, 대학원 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명 (%)

구 분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 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 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계
○승진 영향	-	39 (32.8)	38 (31.9)	12 (10.1)	28 (23.5)	2 (1.7)	119 (100.0)
○직장에서							
상사인정	3 (2.5)	58 (48.7)	32 (26.9)	15 (12.6)	10 (8.4)	1 (0.8)	119 (100.0)
○보수 영향	1 (0.8)	22 (18.5)	41 (34.5)	13 (10.9)	41 (34.5)	1 (0.8)	119 (100.0)
○보건의료 전문							
능력향상	15 (12.6)	68 (57.2)	26 (21.8)	6 (5.0)	4 (3.4)	-	119 (100.0)
○보건전문							
지식 활용도	10 (8.4)	67 (56.3)	27 (22.7)	5 (4.2)	9 (7.6)	1 (0.8)	119 (100.0)
○직장에서의							
의사 반영	4 (3.4)	46 (38.7)	45 (37.8)	16 (13.4)	7 (5.9)	1 (0.8)	119 (100.0)
○전공과목의							
활용도	9 (7.6)	59 (49.6)	34 (28.6)	13 (10.9)	4 (3.3)	-	119 (100.0)
○직업 만족도	16 (13.4)	67 (56.4)	22 (18.5)	8 (6.7)	5 (4.2)	1 (0.8)	119 (100.0)
○보건학 전문							
지식의 만족도	4 (3.4)	66 (55.4)	27 (22.7)	17 (14.3)	5 (4.2)	-	119 (100.0)
○보수교육의							
필요성	24 (20.2)	58 (48.8)	28 (23.5)	6 (5.0)	3 (2.5)	-	119 (100.0)
○전임 교수의							
필요성	60 (50.4)	41 (34.5)	15 (12.6)	2 (1.7)	1 (0.8)	-	119 (100.0)
○장학제도의							
만족도	4 (3.4)	22 (18.5)	56 (47.0)	27 (22.7)	10 (8.4)	-	119 (100.0)
○동창회 활동의							
활성화 필요성	38 (31.9)	62 (52.1)	14 (11.8)	5 (4.2)	-	-	119 (100.0)
○교수와 졸업생							
재학생 사이의							
유대 관계	10 (8.4)	45 (37.9)	40 (33.6)	21 (17.6)	3 (2.5)	-	119 (100.0)
○이수 과목							
효용 정도	14 (11.8)	63 (52.9)	27 (22.7)	8 (6.7)	7 (5.9)	-	119 (100.0)
○보건대학원							
육성책 필요성	34 (28.6)	40 (33.6)	36 (30.3)	6 (5.0)	3 (2.5)	-	119 (100.0)
○타인에게							
입학권유 의사	25 (21.0)	60 (50.4)	25 (21.0)	5 (4.2)	4 (3.4)	-	119 (100.0)
○입학당시의							
기대감	32 (26.9)	69 (58.0)	14 (11.8)	3 (2.5)	1 (0.8)	-	119 (100.0)
○입학당시의							
기대감에 대한							
충족 정도	2 (1.7)	56 (47.1)	38 (31.9)	17 (14.3)	6 (5.0)	-	119 (100.0)

이 118.8%, 보건사회부 또는 직속기관이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도청, 시청, 구청 등의 근무처는 변동사항이 적었다(표 11).

12. 졸업생들의 전문지식 활용도, 사회기여, 직무만족, 대학원 운영에 대한 의견

졸업생들의 석사과정 이수후 보건의로 전문능력 향상은 전체의 69.8%로 나타났고, 전임교수의 필요성, 입학 당시의 기대감, 동창회 활동의 활성화 필요성, 타인에게 대학원 입학 권유 의사, 보건대학원 육성책의 필요성이 각각 84.9%, 84.9%, 84.0%, 71.4%, 62.2%로 많게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상사인정, 보건 전문지식의 활용도, 전공과목의 활용도, 직업의 만족도, 보건학 전문지식의 만족도, 이수과목 효용정도가 각각 보편적으로 나타났으나, 직장에서의 승진영향, 보수영향, 장학제도의 만족도, 교수와 졸업생

및 재학생 사이의 유대관계, 입학 당시의 기대담에 대한 충족 정도는 저조하게 나타났다(표 12).

13. 보건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의견

보건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선후배간의 유대강화 및 새로운 보건지식을 습득할 기회 부여가 18.5%,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현장실습, 실험 실습이 병행되는 전문교육이 16.4%, 학사 과정의 배경이나 보건 전문 분야의 직종 학생에 대해서만 입학토록 하는 입학 기준 제한이 13.7%, 전임 교수제의 보강과 장학금 혜택의 확대로 유능한 보건인력의 확보가 5.5%로 나타났고, 논문에 필요한 통계학 및 방법론 강의 확대, 컴퓨터의 이론과 실제사용 실습이 1.4%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보건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순 위	의 건 내 용	단위 : 명 (%)	
		수	%
1.	선후배간의 유대 강화와 졸업생 및 재학생과 교수와의 대화를 통한 학문의 발전에도 모하고 졸업생들이 새로운 보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보수교육 등 계속 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재학생들이 세미나등을 개최할 때 졸업생 초대.	27	18.8
2.	전임교수 보강, 전공분야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교육 추구하고 참고문헌 및 자료확보, 연구기기 설치 운영.	24	16.4
3.	졸업후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인재의 양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적이고도 직장에서의 실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실습 및 실천적인 교육과정.	23	15.8
4.	입학 기준을 제한한다. 즉, 입학 당시 직장이 없는 경우 학사과정의 학문배경에 따라서 입학 당시 직장이 있는 경우 보건 전문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는 학생들에게 각각 입학 허용토록 하는 등 입학조건 제한.	20	13.7
5.	전문적인 보건학 교육을 위해 교수와 학생들의 노력과 대학원생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생 본인들의 학구에 대한 의욕 필요.	19	13.0
6.	대학원 졸업후 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게함과 동시에 보건대학원 졸업생이 보건분야의 교육기관, 행정기관등 보건 전문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10	6.8
7.	보건대학원에 전임교수의 보강과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확대로 유능한 보건인력 양성.	8	5.5
8.	전문적 지식 향상과 교과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졸업후 진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 필요.	7	4.8
9.	타 대학원의 보건학 교육기관과의 교수 인력을 상호활용 확대 및 학생의 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강의.	6	4.1
10.	논문에 필요한 통계학 및 방법론 강의 확대, 컴퓨터 이론과 실제사용 실습 강화.	2	1.4
계		146	100.0

IV. 고 찰

연구대상자를 모 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으로 한정된 것은 이 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59년에 개원되어 지금까지 보건에 관련된 학문 연구면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 1989년 현재 1,379명의 보건학석사를 배출하여⁵⁾ 국가보건 정책과 보건사업에 이바지한 역할이 컸으나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87년도부터 1989년도까지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조사대상자가 졸업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최근에 졸업하여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기억이나 의견이 생생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자 199명 중에서 조사 당시에 해외 공무여행 중이거나 이민(재미, 재일) 또는 소재지 미상 등으로 199명만 응답(응답률 59.8%)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공 필수과목에서는 모 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개설한 과목과 무관한 과목이 포함된 제한점이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석사전공 분포를 보면 보건행정학이 33.7%, 환경보건학이 21.8%, 보건간호학이 13.4%로 많게 나타난 반면 보건경제학이 0.8%로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보건경제학이 다른전공보다 최근에 개설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전공별 분포를 보면 의학계열 28.6%, 공과대학 18.5%, 농과대학 9.2%, 보건대학 8.4%로 학문적 배경이 보건학과 관련된 대학 출신이 많았는데 이는 곧 학생들의 입학 당시의 학습경험이 보건학 학습에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외에 법과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외국어대학등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상당수의 학생들은 보건학에 대한 학문적 배경이 없으므로 원만한 학습의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보건학의 학문적 발전과 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학부에서 보건학과 동종계열 학과를 이수한 자들을 입학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입학 동기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가 41.2%, 직업과 관련되어서가 35.3%로 높게 나타나 학업의 계속 또는 직업과 관련된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입학 당시의 기대감을 유형별로 보면 보건학 전문지식 습득이 31.9%, 실무의 도움을 위해서가 22.7%,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가 22.7%, 전문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가 18.5%로 높게 나타나 학부에서 전공한 보건학 관련 지식은

더욱 심층적으로 학습하여 보건 전문인, 교수, 연구요원 등이 되기 위하여 보건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생각된다.

졸업후 입학 당시에 가졌던 기대감이 대상자의 48.8%는 충족된 것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 양성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순위별 전공 과목에 대한 의견중 순위별 수위(首位)를 차지한 과목 중 각 순위별로 공통되는 과목은 보건관리학과에서는 보건통계, 역학관리, 보건행정, 보건사회, 공중보건, 보건경제로 나타났고, 환경보건학과에서는 환경보건, 수질관리, 산업보건, 독성학, 폐기물관리, 대기관리로 나타났는데, 보건학과와 환경보건학과에서 보건통계, 역학관리, 2개 과목이 공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에서 보건학과 관련된 학과의 교과목이 학생의 졸업후 취업 및 자격, 면허취득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보건학 자체의 학문을 교육 연구하는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⁵⁾

석사논문 지도교수 배정시기에 대한 의견 가운데 3학기 초가 77.3%로 다수인 것으로 보아 논문지도의 조기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졸업후 전공과목의 활용도에 대한 의견을 보면 보건비전문직 중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역사가 길고 전임교수가 많은 모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경우에는 2년간의 짧은 교육기간에 보건학과 관련없는 일반학과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보건학에 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폭넓은 교육을 시킨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¹⁸⁾ 생각된다.

보건대학원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임 교수의 증원이 37.9%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보건대학원의 전임교수는 서울대학교가 20명이고 인제대학교가 2명이며,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산대학교, 충남대학교에는 전임 교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⁵⁾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보건대학원에서는 학부교수, 외래교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서도 공통 과목 7개 과목, 보건관리 전공에 40개 과목, 인구보건 전공에 31개 과목, 환경보건학과에 29개 과목으로 총 107개 과목을 설치해 두고 있어⁵⁾ 전임교수 20명으로는 이렇게 방대한 과목을 전부 수용하기 어려운 것에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자질 우수한 학생 확보가 33.6%이다. 이는 보

건대학원의 입학 자격을 보면 학부전공의 제한이 없는데 지역사회의 대중을 대상으로 건강의 증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 학문분야가 공동으로 보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협동하지 않고서는 보건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야로서 종합적인 학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²⁰⁾ 점은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1930년대 후반에 미국 공중보건협회내에 전문교육분과위원회가 설립되어 공중보건기관은 물론 민간 보건단체에 종사할 여러종류의 전문요원에 대한 훈련 자격이 설정되었고, ²¹⁾ 보건부기관 요원인 보건관, 보건기사 및 보건간호사는 일정한 공통적인 필수조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²²⁾ 고려할 때 보건에 관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건학 석사과정의 입학기준에 보건분야의 학사학위, 전문직 학위, 학사과정 이수학점, 보건분야의 경력을 포함시켜²³⁾ 보건 전문능력 함양에 용이한 자로 제한하여 보건분야의 학문을 이수한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교육과정 및 방법 개선이 28.5%이다. 보건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일반적으로 보건학을 연구하고 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보건사업에 종사할 인재의 양성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학 입문과정의 성격이 농후하여 기본 학문교육과 전문 직업교육이란 두가지 목적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성취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스스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지금까지 보건대학원의 교육은 전문직업 교육보다는 오히려 학문교육에 더 가까운 교육을 해 온 결과 개론 수업에 치중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볼 때 대학원 교과과정으로서 지나치게 규격화되어 학생의 소양이나 희망에 따른 자주적인 선택의 여지를 제약하여 심오한 학문연구보다는 광범한 입문과정의 성격을 탈피치 못하며 특히 학생의 요구나 사회의 수요가 고려되지 않은 교수 중심의 교과과정 편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교과목이 일종의 개론식으로 전반적인 개괄에 치중하게 되므로 자연히 여러 교수가 분담하여 강의를 하게 되어 교과목에 대한 책임감 결여와 내용의 중복이 우려된다. 또한 교과과정 편성시 교과내용을 결정하고 학점과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목명을 나열하고 여기에 맞춘 획일적인 강의를 함으로써 그 내용이 산만하고 이완되며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학생들의 결강 요인이 되기도 한다.²³⁾ 따라서 보건대학원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실제 훈련기간이 필요하며²⁴⁾ 보건학석사의 교과과정은 보건대학원의 교육목표인 보건분야 전문 직업인의 양성에 중점을 두면서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필수 교과목의 축소, 학생의 자율적 연구기회의 증진, 포괄적 교과목의 세분, 교육목표에 따른 교과목의 배분, 전체 교과목 수의 조정, 전문화의 추구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²³⁾

전공별 입학전, 재학생, 현재 보건분야 근무처 현황을 보면 입학전과 현재의 보건분야 근무처는 커다란 변동이 없고, 입학전과 현재의 보건분야 취업률이 전공별로는 의학 및 보건통계가 233.3%, 보건행정이 54.2% 환경보건이 46.7% 증가하였고, 직업별로는 일반회사가 300.0%, 연구원 또는 연구소가 133.3%, 교육기관이 118.8%, 보건사회부 또는 직속기관이 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국가의 보건시책이 강화되고 건강권 및 환경권이 인정되어 보건인력의 수요가 과거에 비해 급증한 결과로²⁵⁾ 볼 수 있다.

보건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의견으로 1순위는 선후배간의 유대강화와 졸업생 및 재학생과 교수간의 대화를 통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졸업생들이 새로운 보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보수교육 등 계속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재학생들이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 졸업생을 초대하는 것 등이 18.5%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학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연구개발 활동도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으로도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건인력도 계층화하여 전문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규교육 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등 계속교육의²³⁾ 필요성이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2, 3순위는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위한 제반 사항,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실천적 인재양성이 각각 16.4%, 15.8%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대학원의 설립목적인 국가보건사업 및 사회의 변동 추세에 따라 요구되는 보건 전문인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급화를 위한 교육목표를 설정되기를 바라는 데 있는 것으로²³⁾ 생각된다.

V. 요 약

본 연구는 보건학 석사과정 이수자들의 제특성 및 사회활동 분야를 파악하고자 1987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3

년간 모 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한 119명(남자 78명, 여자 41명)을 대상으로 1991년 12월 1일부터 1992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설문지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그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입학 당시의 연령 분포는 24~28세가 46.2%로 가장 많았고 기혼자는 76.5%로 나타났다.
2. 입학 동기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41.2%), 직업과 관련이 되어서(35.3%) 등이 대부분이었다.
3. 입학 당시의 기대감 유형은 보건학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31.9%), 실무의 도움을 위해서(22.7%),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22.7%) 등으로 나타났다.
4. 입학당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울 84.9%였으나, 그 기대의 충족 정도는 48.8%로 나타나 입학 당시의 기대감에 비하여 충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선호하는 전공과목에서 순위별 상위(首位)로 나타난 과목을 보면 보건관리학과와 환경보건학과와 보건통계, 역학관리 등 2개과목이 공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논문 지도교수 1명당 지도받는 학생수는 4~5명이 좋겠다는 의견이 59.7%로 가장 높았다.
7. 장학생 선발시 우선 고려사항은 전(前)학기의 성적이 33.6%,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31.1%, 교수 추천이 24.4%로 나타났다.
8. 졸업후 전공과목 활용에 대해서는 57.1%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보건학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58.9%가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9. 보건대학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임교수의 수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37.9%,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33.6%로 나타났다.
10. 보건대학원 입학전, 재학중, 현재에 걸쳐 보건분야 근무처 현황을 보면 입학전과 재학중에는 근무처 변동이 적었으나, 입학전에 비해 조사당시 연구원 또는 연구소 근무가 133.3%, 교육기관 근무가 118.8%, 보건사회부 또는 직속기관 근무가 300%의 증가를 보였다.
11. 보건대학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선후배간 유대강화, 졸업생·재학생·교수간의 대화를 통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 재학생 중심 세미나 개최시 선배 초대,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현장 및 실험실습과 강의가 병행되는 전문교육, 참고문헌 확보 및 연구기기 설치운영, 지역사회에 요구에 부응되는 보건인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및 실천 교육과정의 채택, 입학자격 조정에 의한 학생

의 질적 수준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권이혁. 공중보건의 역사. 최신보건학, 증판, pp. 22-35, 서울, 신광출판사 1989.
2. 고용린. 보건학의 진로. 보건학논집, 1979; No.29: 25-32.
3. Mott, B.J.F.: The Future of Schools of Public Health. AJPH, 1974; 64(6): 543-548.
4. 김인달. 한국의 보건대학원사. 역사속의 보건학, pp. 69-8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1.
5. 이성국, 박재용, 김정만. 보건학의 현황과 장기발전방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991; 4(1): 36-65.
6.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점육성 연구결과 보고서. 서울대학교, 1979.
7. 허 정, 김화중. 보건대학원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보건학 논집, 1981; No. 31: 41-58
8.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pp. 1-2, 연세대학교, 1983.
9. 이영덕. 평가, 교육의 과정(課程), 증판, pp.31-33, 267-271, 서울, 배영사, 1990.
10. 박형종. 보건의료 전문직 교육의 세계적 동향. pp.33-4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개원 30주년기념 학술대회, 1989.
11. 한국인구보건연구원. 200년을 향한 국가장기발전구상, pp.258-261, 한국 인구보건연구원, 1985.
12. 류승흠. 의료정책과 관리. 초판, p. 43, 서울, 기린원, 1990.
13. 오석홍. 지방자치 실시와 보건의료 행정체계의 진로. 지방자치제와 보건의료 행정체계, pp. 3-37,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1989.
14. 김일순. 질병관리사업의 발전방향. 보건사업의 발전방향, pp.1-12, 1988년도 대한예방의학회 춘계학술대회, 1988.
15. 보건의료부문계획위원회. 제7차 5개년 계획 보건의료부문계획(안), 1991.
16.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편집위원회. 환경보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증보판, pp.49-51, 125-127, 서울, 계축문화사, 1989.

17. Mayhew, L B, Ford, P J : Issues, Practices, and New Models, Changing the Curriculum, pp. 1-15, New York, Jossey-bass Inc., 1976.
18. 홍영선. 우리나라 전문직 보건요원의 수급에 관한 연구. 보건학 논집, 1970 ; 7(1)351-358.
19. 정영일.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 보건학과 및 보건행정학과 교과과정개발,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0 : 7(2) : 56.
20.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0년사 : 1959-1988, pp. 326,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89.
21. Committee on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 Individual reports, Amer.J. Public Health.
22. Hanlon, J J 著, 허 정 譯. 공중 보건의 관리. 보건 행정의 제원리 5판, P.402,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89.
23. 홍재웅. 보건학 교과과정의 개선연구-석사과정을 중심으로-. 보건학 논집 1981, No. 31 : 67-76.
23. Proposed report on field training of public health personnel, Amer. J. Public Health 1955 : 37 : 709.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ctivities of Graduates from A School of Public Health in Seoul

Joo Seon Kim · Kong Hyun Kim · Byung Seong Kim · Hyung Jong Park.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ctivities of graduates from a School of Public Health in Seoul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which migh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ew established Schools of Public Health in Korea.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199 persons who graduated from a School of Public Health in Seoul during the period of 1987 through 1989. The response rate was 59.8% (199 graduate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st 1991 to the end of February 1992 wit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by mail.

Descriptive analysis with Chi-square test was employed for analysi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1. 46.2% of students were the group aged 24-28 and 76.5% of them were married at the time of entrance to the School.
2. The major motives to come to the School were continuous study in a graduate school(41.2%), and strengthening of job opportunities(35.3%).
3. The major expectation of students were to acquire new professional knowledge(31.9%), to improve present work performance(22.7%) and to become an educator(22.7%).
4. 84.9% of students had some kinds of expectation at the entrance to the School, but only 48.8% of them met their expectations they had had.
5. The most preferred subjects were Health Statistics and Epidemiology in order.
6. 59.7% of students insisted that a professor should advise 4-5 students in maximum for a thesis.
7. Students suggested that the candidate for scholarship should be selected from those who had earned high credits in the previous semester(33.6%), who were low economic status(31.1%) or who were recommended by academic adviser(24.4%).
8. 57.1% of students were positive in utilizing their major subjects studied in their current works.
9. Students expressed that if the School of Public Health is to be further developed full-time professors should be added (37.9%) and excellent students be secured(33.6%).
10. After graduation from the school, some of the respondents changed their job placement, the number of persons working in research institutes increased from 6 to 14 persons, those working in educational institutes from 16 to 35, and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its affiliated organization from 10 to 13.

Key words : characteristics, graduates, School of Public Health, social activities.